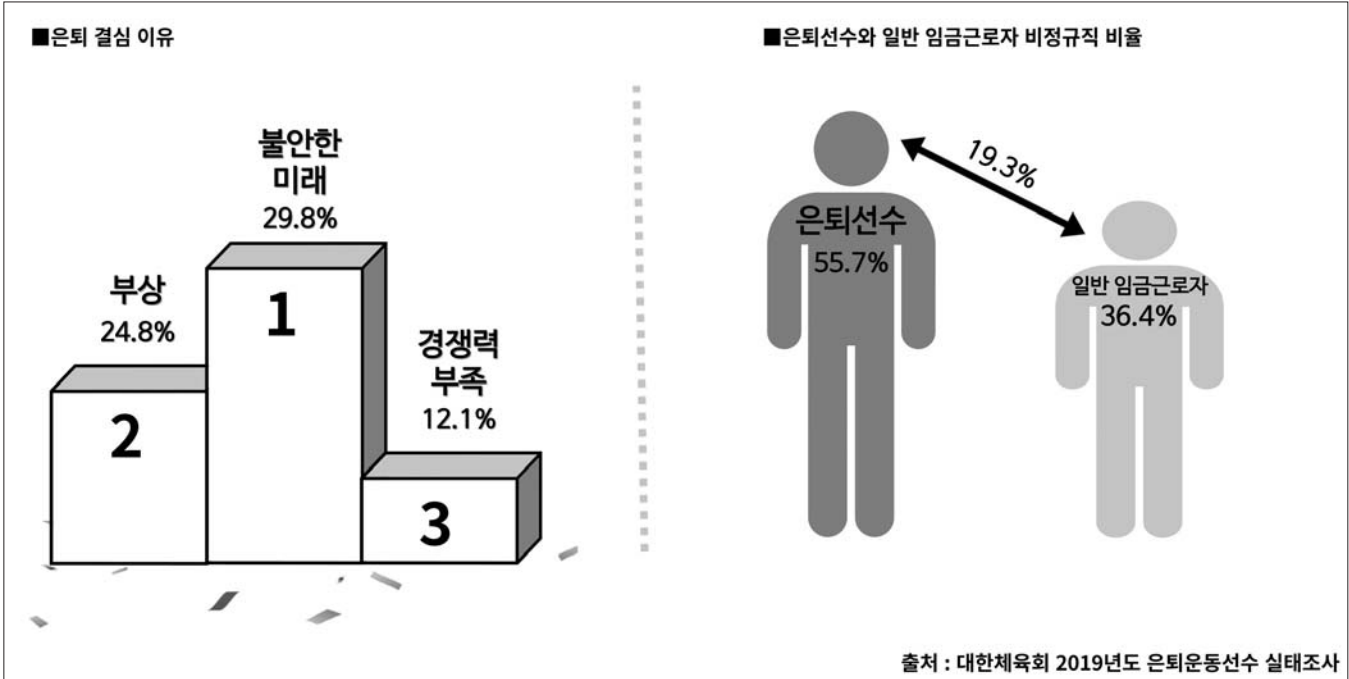


무엇이 선수를 미디어로 향하게 하나

운동선수의 연예인화

환호성을 지르는 팬들, 생일 광고판, 팬미팅,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운동선수’에게 대입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우리 학교 출신 선수들 역시 미디어 매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는 MBC 예능 프로그램 <호적메이트>에 출연해 본고에서 훈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고,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는 ‘아이언빈 윤성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미디어 노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예전보다 운동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스포테이너(sports entertainer) 혹은 연예인처럼 활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김수빈 기자 202080006@m365.knsu.ac.kr



빠르게 지나가는 전성기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나이는 23세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0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에서는 일반인이 평균 53세에 퇴직하여 재취업하면 완전한 은퇴는 평균 71세가량 이루어진다고 대답했다. 일반인과 운동선수의 은퇴 시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운동선수들은 전성기가 빨리 오는 대신 그만큼 노후를 일찍 대비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 문제에 관해 ‘연금’을 언급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연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에서 국민

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하는 ‘체육인 복지사업’ 중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다. E채널 TV 프로그램 <썬어른 미팅>에서 레슬링 심권호 선수(이하 심 선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 연금에 100만 원의 상한이 생기기 전에는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은퇴 나이가 23세이어도 평생을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앞서 언급했던 연금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매달 성인 한 명이 최대 100만 원만으로 살아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소수다. 즉 연금으로 월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선수가 태반이다. 따라서 소수

의 선수를 제외하고 운동선수들에겐 ‘운동선수’라는 직업 외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가 노후를 결정짓는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 체육학과는 당해연도 입학 정원 10%가 교직과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지나가는 전성기에 선수들이 은퇴 이전부터 방송 활동 혹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심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던 1990년대보다 인터넷과 미디어 시장은 급속도로 발달했고,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미디어 플랫폼에서 퇴직 후 전업으로 활동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부상을 기회로
운동선수의 은퇴 시기가 빠른 원인 중, 나이의 압박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부상’이다.
그럼에도 많은 선수는 부상 상태로 경기에 나선다. ‘부상 투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종목에서 부상을 당하고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 관한 기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만큼 이들은 당장 임하는 경기를 위해 온몸을 바친다고 볼 수 있다.
SBS <동상이몽 시즌2>에 출연한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는 방송을 통해 무릎 상태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선수를 감진한 주치의는 ‘일반인이라면 감지 못했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재활 운동 등이 가능한 세계적인 선수도 부상으로 은퇴를 결정했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제때 치료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으로 훈련하지 못해 은퇴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빠르게는 초등학교 저학년, 늦게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에게 부상으로 인한 은퇴는 막막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이상화 선수 역시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여 연금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광고를 찍었지만, E채널 <노는 언니2>에 출연해 부상과 재활로 인한 은퇴 후 무엇을 할지 막막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런 선수들에게 미디어 매체는 긍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 경기를 통해 경쟁과 스포츠의 숭고함을 알리며 대중들의 선망 대상이 되기도 하는 선수들은 하나의 콘텐츠로써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상이 운동선수로서는 큰 시련이지만 시청자들에게는 공감과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키는 요

소가 되기도 한다.
그 예시로 쇼트트랙 박정혁 선수가 있다. 그는 2022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1,000m 준준결승전에서 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그 때문에 해당 종목에선 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그러나 부상 투혼을 발휘한 그는 5,000m 남자 계주 결승전에 은메달을 따냈다. 금메달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그를 기억한다. ‘부상’이 그에게 엔터테이너로서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혁 선수가 쇼트트랙 1,000m에서 손부상을 당한 직후 손을 움켜쥐고 있다. 출처: KBS



박정혁선수가 부상 당시 심경을 말하는 모습이다. 출처: 한국체육대학교방송국 유튜브



전웅태 선수가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모습이다. 출처: 뉴시스



전웅태 선수가 동메달 획득 후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재출연한 모습이다. 출처: KBS joy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우리가 올림픽을 볼 때, 혹은 어떤 스포츠 대회를 볼 때 ‘1등’이 아닌 선수나 팀을 잘 기억하는가? 1등이 아닌 선수를 기억한다면 그 선수의 외적인 모습이 뛰어나다거나, 사람들이 잘 기억할만한 이야기가 있는 선수들이다.
전자의 대표적 예시론 프로 골퍼 유현주 선수가 있다. 2011년 KPGA에 입회한 그는 아직 선수로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시피 하다. 하지만 SBS <편먹고 공치리>, 각종 골

프 유튜브 채널에 나오며 메달리스트나 우승을 여럿 한 선수들보다 미디어 매체에서 활약 중이다. 프로 골퍼로서 ‘실력’이 좋은 선수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나, 엔터테이너로서 활약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후자의 예시론 근대5종 전웅태 선수가 있다. 근대5종이란 다소 생소한 종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하 물어보살)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 MC들의 조언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종목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

말을 이루어냈다. 비록 금메달은 아니지만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그보다 값진 동메달을 따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5종 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이미 그 전에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였지만, 물어보살에 출연하여 종목을 알리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 자신을 알리고, 다시 물어보살에 출연하여 금의환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서 예시로 든 두 선수 모두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혹은 1등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알렸다. 스포츠의 경쟁 속에서 1등이 아닌 이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는, 새로운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물론 외적인 요소로 인기를 끈다면 운동을 통해 스포츠와 경쟁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운동선수로서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메달리스트가 된 선수도, 재미있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수도, 방송에서 예능인과 같이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는 선수도 모두 운동선수인 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엘리트선수 양성시스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77호 스포츠 예능 전성기, 스포츠 스타의 재발견’을 집필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규리 교수는 스포츠 선수의 예능 진출을 두고 우리나라의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 국가에선 스포츠선수들이 운동‘만’하는 선수가 아니라 현역 시절에도 다른 삶을 영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과 광고 등으로 영위할 수 있는 선수, 혹은 대학 진학을 통해 교직을 이수해 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등의 소수 사례를 제외하곤 평생을 운동만 해온 선수들이 젊은 나이에 은퇴 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의 특수성을 미루어봤을 때, 선수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쉬운 사회 진출의 통로로 스포츠 예능 등 TV 출연이 가능하고 있다. 유명한 유명하지 않던 모두 자유롭게 ‘운동선수’라는 희소성으로 미디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만 해왔던 선수들

따라서 운동선수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운동선수 특히 메달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운동선수가 성적을 내기 위해 의무교육인 중학교부터 학업을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 운동선수 학습권과 대회 참가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정책 개선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운동선수’임을 잊지 않도록
지나치게 연예 활동에만 몰입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도 있다. 특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잦은 방송 일정과 촬영이 선수의 생체 리듬과 훈련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높은 성적을 바라보는 선수들에겐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후순위로 미루어야 한다.
대부분 젊은 운동선수들이 직접 운영하는 SNS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역 선수라면 자신이 벌인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일도 있다. 혹은 논란이 없는 선수라도 열성적인 팬으로 인해 선수의 이미지 역시 나빠지기도 한다. 경쟁 선수에게 피해가 갈 정도의 응원을 한다거나,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도 미디어 매체에 많이 나오길 좋아하는 팬들이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응원하는 팬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기자 생각

스스로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야

결국 선수 스스로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지 명확해야 한다. 운동선수로서만 미디어에 비치고 싶은지, 엔터테이너로서 비치고 싶은지, 혹은 둘 다인지. 선택한 후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각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미래의 운동선수들이 은퇴 이후, 혹은 1등이 아니더라도 ‘운동선수’로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일회성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흔히 소수의 ‘스타 선수’를 제외하곤 선수가 단순히 소재로써 쓰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열심히 일구어 놓은 운동선수로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디어 출연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